

광주교육청, 내년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동전형 70명 선발

공동전형 참여법인 21개로 대폭 늘어

광주시교육청이 '2020학년도 사립 중등(특수)교사 공동전형' 신청을 마감한 결과 16개 법인이 사립학교 신규교사를 70명 선발하겠다고 접수했다. 2018학년도에는 6개 법인 15명, 2019학년도 6개 법인 19명을 채용했던 것에 비해 2020학년도에는 참여법인 및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

2018년부터 실시중인 사립교사 신규채용 위탁전형에 광주시교육청 관내 35개 사학법인 중 21개 법인이 참여해 참여율이 60%에 달했다. 학교 수도 72개교 중 36개에 달해 시교육청에서 추진중인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사립 중등(특수)교사 공동전형을 19개 과목, 70명 선발인원에 해 사전 예고

했다. 과목별 선발 인원은 도덕·윤리 3명, 국어 6명, 수학 8명, 물리 3명, 화학 8명, 생물 2명, 지구 과학 4명, 일반사회 4명, 역사 2명, 음악(특수 포함) 4명, 미술 2명, 체육(특수 포함) 6명, 영어 6명, 중국어 1명, 전기·전자 1명, 상업정보 2명, 보건 1명, 종교 6명 등이며, 10월7일 교육청과 해당 학교법인에서 정식 채용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학교법인의 공동전형 제1차 시험은 교육청에서 주관해 중·고등학교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과목별 자체 출제를 통해 오는 12월 14일 실시한다. 제1차 시험 합격자(5~6배수)를 해당 학교법인에 추천하면 2차 수업실연과 3차 심층면접은 법인 자체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조인호 기자

2020학년도 사립 중등(특수)교사 공동전형에 참여한 사학법인이 대폭 늘어난 것은 지속적인 소통의 결과다.

시교육청은 35개 사학법인들과 '찾아가는 사학간담회' 등을 꾸준히 진행했다. 특히 공동전형에 참여한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 우선 지원 ▲사학 공공성 강화 법인 평가 기점 부여 ▲각종 교육공모사업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국장은 "2018학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광주형 모델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도 공교육의 한 축인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립신규교사 위탁채용 방법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나주교육지원청, 학부모연수 진행



나주교육지원청이 3일~24일까지 나주 관내 학부모 40명을 대상으로 나주교육지원청에서 '통(通)하는 부모, 성장하는 자녀' 학부모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운영으로 4회기에 걸쳐 일반학생 학부모와 장애학생 학부모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가족의 역동을 통해 형성된 가짜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 억제 및 감정을 소통하는 의사소통을 배워 내안의 나를 찾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강진교육청,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연수

강진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강진고 영랑홀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센터 중심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방과후 외부강

사 학교교육 이해도 증진 △방과후 외부강사 책무성 강화 및 교육력 제고를 통한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원 △방과후 외부강사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연수내용에는

방과후학교 정책 방향에 대한 안내를 비롯해 청렴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연수와 더불어 '방과후학교 이것이 궁금해요!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내년도 센터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점검하였다.

순천대, 중국 학생 초청 한국학 프로그램 운영

허베이 관광전문대학 학생 초청 문화체험 등 진행



순천대학교는 최근 1주일 간 진

하게 한국학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한국학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순천대가 보유한 우수 교육 시스템을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허베이 관광전문대학 재학생 10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중국 유학생과 순천대 재학생들이 멘토링 팀을 구성해 △한국 음식 만들기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 체험 △전통 부채 만들기 △순천만 정원/여수 해양 자원 탐방 △뷰티 체험(스킨·로션)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과 한국어 수업 등을 진행하였다.

전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전남도교육청이 3일 나주문화 예술회관에서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나주·장성 등 전남 중부권의 지역주민과 학부모, 교직원,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전남 교육정책과 교육재정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주민의 다양

년 예산편성이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전남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 △전남혁신교육 운영 방향 △2019년 전남교육재정 현황 △2020년 재정운용 여건과 기본방향 설명에 이어 주민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돼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계기가 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장석웅 교육감은 "취임 후 지금까지 민주주

의, 혁신, 미래의 3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전남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내년에는 지역사회와 협치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교육력 제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 미래교육을 통한 창의·융합적 인재 육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접수된 주민 의견은 사업부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티당성 검토 등을 통해 예산안에 반영되며, 결과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여수 신기초, 가상현실(VR) 스포츠실 개원



참석해 학생들과 VR 스포츠를 체험했다.

신기초 VR 스포츠실은 지난 7월 착공해 스크린 기반 스포츠존, VR 바이크존 등을 설치했으며, 총 사업비는 7,200만 원(문체부 기금 50%, 여수시비 50%)이 투입됐다. 키넥트 시스템(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체감형 프로그램)을 갖춘 VR 스포츠실에서는 야구·양궁·축구를 비롯한 140여 개의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시구 및 시투를 안내한 배성국 교사는 "프로그램 조작과 스포츠실 사용 매뉴얼만 익히면 누구든지 쉽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VR 스포츠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신용관 교장은 "우리 학생들의 부족한 놀이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놀 권리와 보장해 주는 것이 가

장 큰 목표이며 과제였다."면서 "VR 스포츠실은 신체활동이 부족한 현실적 교육 여건을 학생들의 선호도에 맞춰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다."고 밝혔다.

VR 스포츠실 설치·보급 사업은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자체와 재원을 나눠 실내 체육 환경 조성 및 학교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튜 교실을 활용해 가상현실(VR)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미세먼지, 폭염 등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위험요소를 제거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

김용대 여수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VR 스포츠실에서 마음껏 즐기며 신체적·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신기초를 시작으로 여수의 많은 학교가 VR 스포츠실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